

제13권 6호

2023. 3. 13~2023. 3. 26



하나금융 포커스

Bi-Weekly Hana Financial Focus

- 논단** 최근 환율변화에 따른 위험과 경쟁적 환위험
- 이슈분석** 침체기를 끝낸 PEF 시장, 양극화에 주목해야
- 금융경영브리프** Be Creative, Be Bold! 2023년 M&A 트렌드
은행 'AI 성숙도 지수'와 AI 관리 체계 개선
- 금융시장모니터** 금 리 : 3월 FOMC에 대한 시장 눈높이 상향
외 환 : 美 긴축 우려 vs 中 회복 기대
- 금융지표** 국내 금융시장
해외 금융시장

인간

연구자는 사람⁺, 고객은 사람⁺⁺

세상을 바꾸기 전에 먼저 사람을 바꿔야 합니다.

현실에 기초한 진지한 연구를 통해
사회적 신뢰를 창조하는 것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사명입니다.



집필진

편집

선임연구위원 장보형(jangbo)
연구위원 김영준(kimekono)
연구원 김중현(jh.kim_)

논단

교수 김태중

이슈분석

수석연구원 고은아(eunahko)

금융경영브리프

수석연구원 하서진(jseojinha)
수석연구원 신상희(sanghuishin)

금융시장모니터

금 리 | 연구원 윤석진(sjyun826)
외 환 | 연구위원 오현희(hyunheeoh)

금융지표

연구원 진옥희(okheejin)

하나금융 포커스

Bi-Weekly Hana Financial Focus

- 01 **논단** 최근 환율변화에 따른 위험과 경쟁적 환위험
- 04 **이슈분석** 침체기를 끝낸 PEF 시장, 양극화에 주목해야
- 08 **금융경영브리프** Be Creative, Be Bold! 2023년 M&A 트렌드
은행 'AI 성숙도 지수'와 AI 관리 체계 개선
- 12 **금융시장모니터** 금 리 : 3월 FOMC에 대한 시장 눈높이 상향
외 환 : 美 긴축 우려 vs 中 회복 기대
- 16 **금융지표** 국내 금융시장
해외 금융시장

최근 환율변화에 따른 위험과 경쟁적 환위험*

김 태 중 충남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코로나19로 촉발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개별 국가들의 경제정책으로 인한 유동성 증가, 그리고 글로벌 가치사슬의 붕괴 영향으로 국가의 대외경제 지표인 환율 변화의 수준과 정도가 매우 높아졌다. 최근의 환율변화는 국가경제에도 다양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경영활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주고 있다. 2023년은 기존의 원/달러 환율변화에 대한 일차원적인 접근보다는 경쟁국가들의 환율을 동시에 고려하는 경쟁적 환위험을 기업 입장에 맞게 적용하고, 적절한 통화관리 및 파생상품 이용 등을 통한 환위험의 전략적인 헤지가 필수적인 원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국경제의 불확실성을 대변하듯 환율변동이 심상치 않다. 2021년 1월 약 1,100원이었던 원/달러 환율은 1년 만에 100원이 올라 2022년 1월 초 1,200원으로 상승하였고, 그 6개월 후인 7월 초에는 1,300원까지 상승하더니 급기야 그 3개월 후인 10월 초에는 1,400원을 훌쩍 넘었다. 2년 남짓 사이에 30%가 넘는 급등세를 보인 것이다. 이후 환율은 방향을 바꾸어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3개월이 지난 2023년 2월에는 20% 가까이 하락해 1,200원 초반대로 내려갔고, 다시 한 달 사이에 100원 이상의 급상승을 보이는 롤러코스터 행태를 보였다. 이로 인해 경제정책 당국의 의사결정은 물론이거니와 환위험에 노출된 국내 기업들의 경영활동의 어려움도 더욱 가중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최근 환율변동에 따른 국가 경제와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정리해보고, 이를 이해하고 극복하기 위한 경쟁적 환위험과 환위험관리전략에 대해서 검토해보고자 한다.

롤러코스터
행태를 보이고 있는
원/달러 환율

❖ 환율은 두 통화 사용국가의 경제력을 보여주는 지표

환율(Foreign Exchange Rate)은 일반적으로 두 국가의 통화를 교환하는 비율이라고 정의되며, 통화를 사용하는 각 국가의 대외적인 경제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다. 한국은 대표적 교역국이며 기축통화 보유국인 미국의 달러화에 기반하여 원/달러 환율을 외환시장에 도입하고, 1998년 이후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자유롭게 결정하는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 본고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으로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환율은
외환시장에서
거래되는 외화상품을
원화로 구매하는 가격

원화와 달러화가 1,200원 대 1\$로 교환이 이루어지면 이를 1,200원/1\$나 혹은 원/달러 환율 1,200원이라고 한다. 환율이 100원 상승하면, 1,300원/1\$ 또는 원/달러 환율 1,300원으로 표시된다. 이때 원화의 가치는 어떻게 된 것일까? 환율이 상승하여 표시되는 원화 값이 높아졌으니 원화의 가치가 높아진 걸까? 환율을 두 통화의 교환비율로 생각한다면 이런 상황에 대한 이해가 직관적으로 와 닿지 않는다. 그 대신에 1\$를 거래되는 하나의 상품으로 보고 이 상품이 거래되는 시장, 즉 외환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환율로 보면 이해가 쉬워진다. 1\$라는 상품을 1,100원에 사다가 1,200원에 구입하면, 1\$의 가격이 오른 것이 되고 1\$의 가치도 높아진 것이다. 반대로 1\$를 구입하기 위해 원화를 더 많이 지불해야하기에 원화의 가치는 떨어진다. 다시 말해, 환율과 원화가치는 반대방향으로 움직인다. 특히, 최근의 환율변동은 방향성에서도 예측하기 힘들뿐만 아니라 그 변동의 폭도 매우 커서 불확실성, 즉 위험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 환율변화에 따른 국가경제의 영향

환율 상승은
국민총소득 감소와
무역수지 적자,
외환보유액의 감소
등에 영향

환율변동으로 인해 국가경제의 주요 지표이며 국민의 평균적인 소득수준을 보여주는 1인당 국민총소득(GNI, Gross National Income)이 3만 2,661달러로 1년 전보다 7.7%나 감소하였다. 원화 기준으로는 1년 전보다 4.3% 늘었지만, 국제비교를 위해 달러화로 환산한 결과이다. 1953년 67달러였던 1인당 GNI는 2017년 처음 3만달러대에 진입하여, 2018년까지 증가하다가 2019년, 2020년 2년 연속 줄었다가 2021년에 반등했지만, 2022년 환율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다시 하락하였다. 한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신생국가들 중에서 유일하게, 또 전세계적으로도 7번째로 국민소득 3만달러(30,000), 인구 5천만명(50,000,000)이라는 3050클럽에 가입하였는데, 환율 상승으로 인해 국민소득 기준이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코로나19의 공포는 어느 정도 가라앉았지만, 환율의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한국경제의 핵심인 무역과 투자의 불확실성도 높아졌다. 특히 국가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수출은 작년도에 최고치를 경신하였지만, 에너지 및 원자재가 급등으로 인한 수입액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22년 3월 이후 1년간 계속해서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였고, 작년 10월부터는 수출도 감소세로 돌아서 위기감이 상승하였다. 코로나 이후 꾸준히 유지되던 국내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FDI)도 2021년 4분기에는 309억달러로 평균 대비

2배 가까이 급증하였고, 이러한 기조는 2022년도에도 지속되었다. 전반적인 무역상황의 악화 및 기업들의 해외투자 등으로 인해 국가의 외환보유액도 2021년말에 비해 2022년도말 기준으로 약 500억 달러가 감소하였다.

∴ 환율변화에 따른 기업경영의 변화와 시사점

전통적으로 환율의 상승이 원화 가치를 하락시키면 수출시장에서의 원화 표시 제품의 가격경쟁력은 상승하게 된다. 1970년대부터 소규모개방경제인 한국정부는 수출을 중시하였고,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에서의 가격경쟁력을 위해서 고(高)환율 정책을 선호하였다. 이후 30년동안 글로벌화가 급격히 진행되었던 상황에서,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지역별로 블록화된 가치사슬의 형성 및 개별국가들간의 비대칭적인 환율 및 경쟁상황에서는 이러한 고환율 정책이 과연 한국기업들의 제품 전반의 경쟁력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우선,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하는 제조업의 경우, 환율 상승은 기업의 직접적인 원가 상승을 가져왔고, 또한 생산비용으로 인해 이미 많은 국내 기업들이 중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으로 생산거점을 옮기고 중간제품을 역수입하여 국내에서 최종조립을 하는 경우에는 환율상승으로 인한 원가인상분을 고객에게 전가(pass-through)하기도 어려워져서 기업들의 수익성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환위험은 결국 기업이 외환과 관련하여 얼마나 노출이 되고 있는지와 당시 환율변동의 결합으로 나타나는데, 개별 기업의 입장에서는 환율은 통제할 수 없기에 대부분 환노출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된다. 게다가 한국의 대표적 수출품인 자동차, 선박, 반도체, LCD, 가전 등은 인근의 일본이나 중국기업의 제품들과 경쟁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칫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더라도 엔화나 위안화의 환율상승이 더 높다면 오히려 원화의 상대적인 불이익, 즉 경쟁적 환위험으로 다가올 수 있다.

따라서, 국내기업들의 환위험관리의 대상과 전략도 수정되어야 한다. 즉, 기존처럼 원/달러 환율 자체에만 관심을 갖기보다는 개별 기업들이 처한 환노출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시장에서 경쟁하는 기업들의 통화와의 상대적인 환위험을 사전적으로 고려하고, 이를 적절히 헤지하기 위한 전사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환위험을 헤지하는 내부적인 방법은 통화분산, 매칭, 레깅과 리딩 등이 있으며, 외부적인 방법으로는 무역보험의 가입이나 금융기관을 통한 파생상품 활용 등이 가능한 수단이 될 수 있다. 

환율 상승에도
기업 경쟁력은
오히려 악화

원/달러 환율보다는
경쟁국가와의
상대적 환율에 의한
경쟁적 환위험 관리가
더욱 중요

침체기를 끝낸 PEF 시장, 양극화에 주목해야

고 은 아 수석연구원(eunahko@hanafn.com)

2021년까지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온 국내외 사모펀드가 2022년 급격한 금리 인상 기조 하에 경기 침체 우려까지 커지면서 침체기로 들어섰다. 유동성 악화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트랙레코드가 풍부한 대형 운용사는 조 단위 펀드를 결성하며 운용사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다. 2023년도 PEF 시장은 대형사에 유리한 바이아웃 투자와 세컨더리 펀드가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형사로의 자금 쏠림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중소형 운용사는 CO-GP(공동운용사) 결성으로 트랙레코드를 축적하고 특정 지역 및 산업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면서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 2022년 경기 악화가 지속되면서 국내외 기관전용 사모펀드(PEF) 시장 성장세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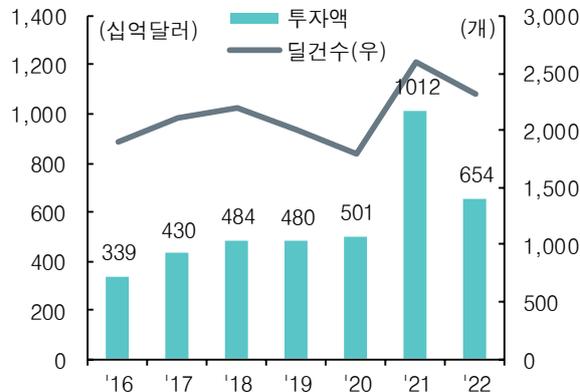
- 코로나19 이후 시장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M&A가 활발해지면서 '21년 국내 기관 전용 사모펀드(PEF) 약정액은 전년 대비 20.1% 상승한 116.1조원을 기록
 - 국내 신규 PEF 자금모집 금액 (연간, 조원) : 15.6('19) → 17.9('20) → 23.4('21)
- 그러나 '22년 3高(고금리·고물가·고환율) 파급효과로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하반기 이후 기관전용 사모펀드(PEF)로의 자금 유입이 감소세로 전환
 - '22년 1~9월 중 신규 PEF 자금모집 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87%로 감소한 13.2조원
- 글로벌 사모펀드 시장도 '22년 바이아웃 투자 규모가 35% 감소한 6,540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체 건수도 10% 하락한 2,318건으로 성장이 둔화
 - 글로벌 바이아웃 (연간, 십억달러) : 480('19) → 501('20) → 1,012('21) → 654('22)

■ 국내 기관전용 사모펀드 시장 투자액 및 건수 추이



주 : 금융감독원

■ 글로벌 사모펀드 시장 투자액 및 건수 추이



자료 : Bain & Company

[1] "Private Equity Outlook in 2023: Anatomy of Slowdown", Bain & Company, 202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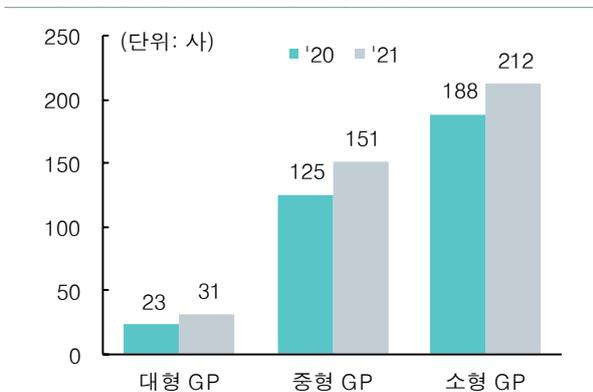
■ 유동성 악화로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은 가운데 대형 사모펀드 운영사 위주의 쏠림 현상

- '21년 사모펀드 제도 개선으로 PEF 투자대상과 운용 자율성이 확보되고 코로나19로 급증한 유동 자금의 영향으로 신생운영사의 시장 참여가 대폭 증가
 - '21년 업무집행사원(GP)은 전년대비 58개(17.3%) 증가한 394개가 신설되었으며 출자약정액이 1조원 미만인 중·소형사 GP 위주로 증가하였음
- 그러나 국내 주요 기관투자자(LP)들이 트랙레코드로 충분히 검증된 대형 운용사 위주로 안전하게 출자하려는 성향이 강해지면서 대형사 위주 쏠림 현상 발생
 - '21년말 업무집행사원(GP) 규모별 약정액 비중 : 대형GP(출자약정액 1조원이상) 57.6%, 중형GP(출자약정액 1천억원~1조원) 37.1%, 소형GP(1천억원 미만) 5.3%
 - '22년 교직원공제회, 국민연금 등과 같은 국내 주요 기관투자자(LP)들의 출자 자금이 스톤브릿지, IMM PE, 스틱인베스트먼트 등과 같은 대형 운용사로 집중

■ 운용사들은 벤처투자(VC)와 사모펀드(PE) 사업부 분할 독립하여 투자 효율성을 제고

-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기업의 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유망스타트업 투자 선점을 위한 PE사의 투자 결정 단계가 앞당겨짐에 따라 VC와 PE 투자 경계가 사라짐
 - 글로벌 투자사 칼라일그룹은 카카오모빌리티에 2억달러 투자('22.2)
- 또한 투자 시장 유동성 확대에 따른 벤처캐피탈(VC)의 대형화가 이뤄지면서 VC가 PE로 사업 영역을 넓히면서 공격적 투자 행보를 이어감
 - IMM인베스트먼트는 설립 2년차였던 크래프톤에 투자 후 PEF로 투자 규모 확대
- 하지만 최근 들어 운용자산 규모별 투자 전문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모펀드(PE)와 벤처투자(VC)를 독립 법인으로 분할하려는 움직임
 - 스톤브릿지는 VC·PE 사업부 분할, IMM PE는 ICS(크레딧솔루션)를 자회사로 설립 후 지주사 전환, 스틱인베스트먼트는 VC 부문을 분할해 스틱벤처스 설립

■ 업무집행사원(GP) 규모별 현황 추이



자료 : 금융감독원

■ '22년 PEF 주요 출자사업 위탁운영사 선정 현황

출자기관	규모(원)	위탁운영사
교직원공제회	6천억	스카이레이크, 스틱인베스트먼트, IMM PE
국민연금	5천억	스톤브릿지, IMM인베스트먼트, SG PE
사학연금	4천억	스톤브릿지, 스카이레이크, 스틱인베스트먼트, IMM PE
수출입은행	4천억	스톤브릿지, 아주IB투자, 한투PE
한국성장금융	3.5천억	스톤브릿지, 한투PE, 아주IB투자, SG PE
우정사업본부	3천억	스카이레이크, 스틱인베스트먼트
농협중앙회	2천억	스톤브릿지, 아주IB, IMM PE

주 : 언론보도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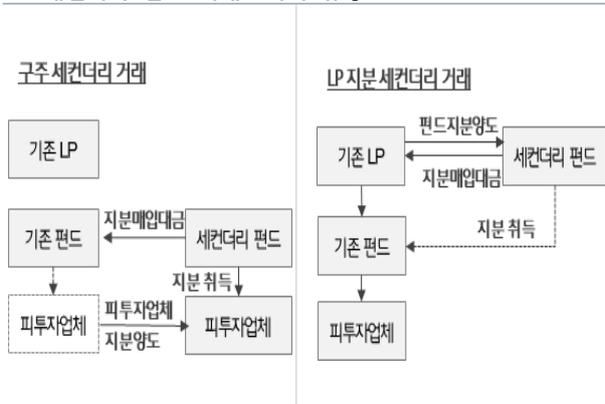
■ 고금리로 유동성 압박을 받는 기업이 늘어남에 따라 바이아웃 중심의 투자 이어질 전망

- 고성장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플랫폼 기업들이 IPO나 자금조달에 실패하면서 경영권을 매각하는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보임
 - 유니콘 스타트업인 유통 플랫폼마켓컬리와 오아시스는 기업가치가 급락하면서 IPO를 철회하였고 이에 따른 현금 유동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제기
- 충분한 자금을 보유한 대형 사모펀드 운용사들은 경기침체로 가치가 하락한 기업 매물을 중심으로 공격적 투자에 나설 가능성
 - 금리 인상 등에 따른 기업의 이자부담 증가로 기업 조달난이 가중되면서 부실 우려가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한 구조조정 M&A 활성화 예상
- PEF는 경기 하락장의 저평가 된 기업을 매입 후 기업 가치 높여 이익을 극대화하다 보니 일반적으로 침체기에 사모펀드가 투자한 상품의 수익률 높은 편

■ 기관투자자(LP)의 출자금 회수를 위한 방안으로 세컨더리 펀드가 부상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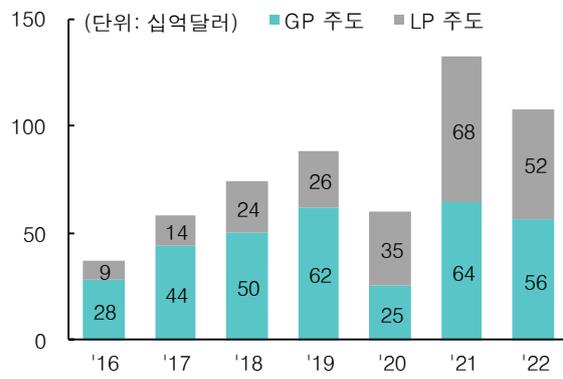
- 경기침체의 지속으로 IPO 및 M&A와 같은 투자 회수가 어려워짐에 따라, 새로운 회수 방안이자 대체투자 수단인 세컨더리 펀드(Secondary Fund)가 부상
 - 세컨더리 펀드는 (i) 기존 PEF가 보유한 기업의 지분(주주)을 다른 PEF가 직접 인수, 또는 (ii) 펀드 내 LP 지분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재간접 펀드(Fund of Funds)의 일종
 - 기존 PEF가 보유한 지분을 인수함으로써 초기 비용 투자로 발생하는 마이너스 수익률 구간을 피할 수 있어 투자회수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수익률이 안정적인 편임
- LP의 출자금 회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중간 회수 차원에서 세컨더리 전략을 추구하는 GP 주도의 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
 - 세계 최대 사모펀드 운용사인 블랙스톤은 지난 1월 투자자 및 사모펀드 주간사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250억달러 규모의 세컨더리 펀드를 조성

■ 세컨더리 펀드 거래 2가지 유형



주 : 한국성장금융

■ 글로벌 세컨더리 펀드 거래 규모



자료 : Jeffer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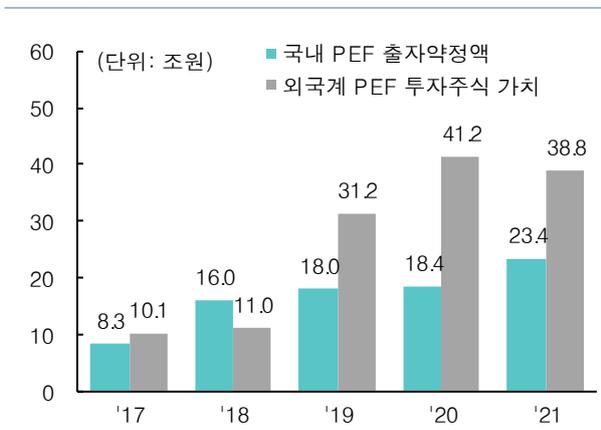
■ 글로벌 사모펀드 운용사까지 국내 시장에 진출하며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

- 최근 달러 강세, 자본의 탈 중국화 현상과 더불어 반도체 및 IT 기반의 미래지향적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이 적절한 투자 지역으로 떠오르면서 글로벌 운용사들의 국내 진출 가속화
 - 8년 전 한국 사무실을 철수했던 블랙스톤이 '22년 한국시장에 재진출하였으며, 미국 아폴로글로벌매니지먼트와 스웨덴 EQT 파트너스 등은 한국 법인을 설립
- 외국계 PEF의 투자금액 증가 폭이 국내 PEF 투자금액 증가 폭보다 높음
 -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매출 상위 500대 기업의 외국계 사모펀드가 보유한 상장사의 지분가치(38.0조, '22.9월 기준)가 국내 사모펀드가 보유한 상장사 지분가치(4.4조, '22.9월 기준)의 8.7배 수준
- 고금리와 경기침체 지속으로 트랙레코드가 부족한 신생·중소형 사모운용사의 난항이 예상되는 가운데 대규모 블라인드 펀드 결성이 가능한 대형사 및 외국계 운용사 위주로 사모펀드 시장이 재편될 것으로 보임

■ 사모운용사는 투자 대상 및 사업 다각화 등 차별화된 시장 접근이 필요

- 고금리·고물가 경기 지속에도 불구하고 대형 사모운용사들은 조 단위 블라인드 펀드를 결성, 대형사간 바이아웃 매물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이 예상
- 이에 중소형 사모운용사는 Co-GP(공동업무집행조합원) 결성을 통해 트랙레코드를 축적하고 떠오르는 특정 지역 및 산업의 틈새시장을 공략할 필요
- 개인투자자도 참여할 수 있는 일반 사모펀드 진출로 고액자산가와 수백조원에 달하는 퇴직연금 시장 등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 모색
 - IMM PE 자회사 ICS는 일반 사모펀드 운용사 설립 위한 금감원 등록 절차 중 

■ 국내 PEF vs 외국계 PEF 투자액 비교



자료 : 리더스인덱스

■ 주요 사모펀드 운영사의 신규펀드 결성 계획

운용사	펀드명	결성 목표
MBK파트너스	6호 펀드	8조원 이상
IMM PE	로즈골드 5호	2조 6천억원
IMM 인베스트먼트	페트라 9호	2조원
스틱인베스트먼트	스틱 오퍼튜니티 3호	2조원
VIG파트너스	5호 펀드	1조 5천억원
스카이레이크에쿼티 파트너스	12호 펀드	1조~1조5천억원
맥쿼리PE	MKOF 6호	1조원
유니스캐피탈	3호 펀드	8천억원
스톤브릿지캐피탈	2호 펀드	7천억원

주 : 언론보도 종합

Be Creative, Be Bold! 2023년 M&A 트렌드

하 서 진 수석연구원(seojinha@hanafn.com)

PwC의 CEO 대상 설문조사 결과, CEO들은 경기침체에 대응해 전략적 M&A를 계획 중이며 이를 위해 수익 증대 및 비용 절감을 촉진하고 있다. M&A 당사자들은 사업규모 재조정, 다양한 자금조달 대안 모색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으며 M&A 성사를 위해 창의적인 시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023년 글로벌 M&A 시장은 경기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CEO의 전략에 변화와 M&A가 우선시되며 다수가 M&A를 계획하고 있어 위기에 대응하는 담대하고 기민한 자세가 중요해질 전망이다.

■ CEO는 경기침체에 대응해 전략적 M&A를 계획하며 수익 확대 및 비용 절감을 촉진^[1]

- CEO 대상 설문 결과, CEO 중 73%가 향후 1년 간 경제 성장률이 하락할 것으로 응답했으며 기업이 직면한 위험은 물가 상승, 거시경제 불안정 순으로 답변
- CEO 중 40%는 기업이 현 상황을 유지한다면 10년 후 살아남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미래를 위해 사업구조를 재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
- 또한 향후 1년 간 잠재적인 위험에 대비해 고려하고 있는 조치를 설문한 결과, 수익 증대와 비용 절감을 촉진하면서도 인력을 감축하거나 계획 중인 M&A를 연기하지 않겠다는 비중이 높게 나타남

■ M&A 당사자들은 사업규모 재조정, 다양한 자금조달 대안 수립 등으로 대응^[2]

- (기업) 여유자금이 있고 성장 기회를 포착한 기업은 M&A 시장에서 적응하는 반면 일부 기업은 부채 감소에 대한 압박으로 사업규모를 재조정
- (자산운용사) 고금리와 자금조달 문제로 M&A가 둔화되나 자산운용사는 투자계획을 유지하면서 신규 투자기회와 포트폴리오 회사의 가치 창출에 집중
- (대출형 펀드) 은행이 고위험 부문에 익스포저를 제한하는 반면 대출형 펀드가 대출에 필요한 유동성을 제공하며 대규모 M&A에 참여할 가능성이 증가
- (벤처캐피탈) 투자자들이 위험회피를 위해 투자를 회수하고 기업 가치를 재평가함에 따라 추가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초기단계 회사가 증가할 전망

[1] "PwC's 26th Annual Global CEO Survey", PwC, 2023.1.16

[2] "Global M&A Industry Trends: 2023 Outlook", PwC, 2023.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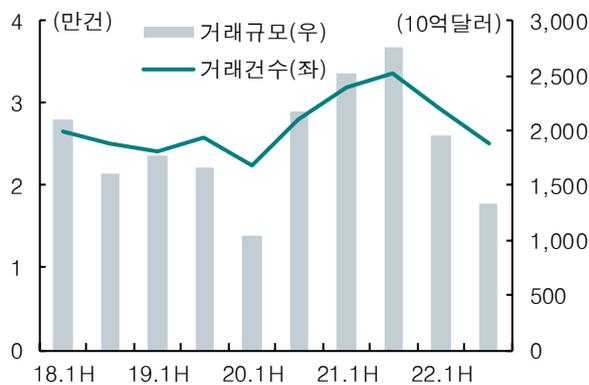
■ 경기 침체가 심화되는 가운데 M&A를 위해 창의적이고 긍정적인 시각을 갖출 필요

- (창의적인 자금조달 대안 마련) 조달 비용 상승으로 자금마련이 어려워졌으나 투자자들은 컨소시엄 구성, Term Loan 등 자금조달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구성
- (가치 창출을 위한 방안 고려) 공급망 재구성, 파트너십 구축, 클라우드 전환 등 운영 상의 민첩성 제고, 세금 효율성 향상 등으로 가치 창출
- (자산 검토 및 포트폴리오 최적화) 포트폴리오 최적화를 위해 비핵심 또는 저성장 영역을 매각해 투자자금을 마련한 후 높은 성장성이 있는 분야에 재투자
- (저평가 시기를 인수 적기로 활용) 벤처 투자가 축소되며 초기 단계 기업이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지나 이를 합리적인 가치로 인수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
- (다양한 곳에서 투자기회 모색)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 우려 등은 국가마다 동일한 충격을 끼치지 않는 점을 고려, 투자 국가를 다변화해 투자기회를 창출할 필요
 - 2022년 미국, 중국 등 많은 국가에서 M&A가 침체된 반면 인도는 M&A 거래 금액이 전년 대비 35% 증가하며 사상 최고치 기록

■ 변화와 M&A가 우선시 되면서 글로벌 M&A 시장은 위기를 직면하는 담대함이 중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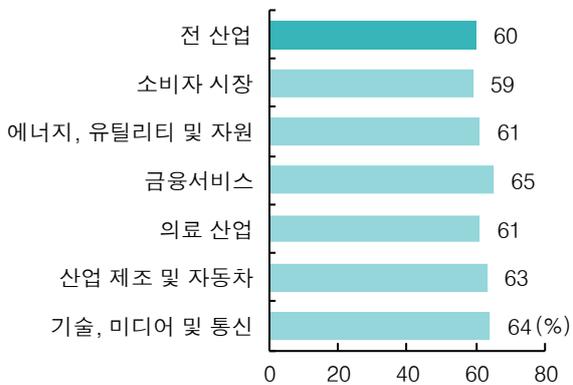
- 2023년 글로벌 M&A는 경기 침체 우려에도 CEO의 전략에 변화와 M&A가 우선시되며 CEO 중 과반 이상이 M&A를 계획하고 있어 흥미로운 한 해가 될 전망
- M&A 당사자들은 경기 상황에 주된 영향을 끼칠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종료 시그널에 집중하며 유연한 전략을 수립하는 등 담대하고 기민한 자세로 대응
- 또한 위기 대응 과정에서의 포트폴리오 재조정 및 최적화는 기업의 장기적 성장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수단으로 작용할 전망 

■ 글로벌 M&A 건수 및 규모



자료 : Refinitiv, Dealogic and PwC analysis

■ 2023년 M&A 추진 의사 비중



자료 : PwC's 26th Annual Global CEO Survey

은행 'AI 성숙도 지수'와 AI 관리 체계 개선

신 상 희 수석연구원(sanghuishin@hanafn.com)

영 핀테크 기업인 Evident가 주요국 대형은행의 인공지능 활용 실태를 기반으로 AI 성숙도 지수를 발표했다. 주요 은행들조차 JP모건을 제외하면 50점 미만의 점수를 받아 임직원 역량, 혁신, 리더십 및 투명성 면에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AI를 통해 수익성을 탁월하게 개선하고 있는 기업들은 비즈니스 목적의 AI 전략을 중시하는 등 타사와 차별화된 AI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우리나라 금융사도 AI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주기적인 AI 성숙도 평가 및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 금융 산업 내 인공지능(AI) 활용 규모는 증가 추세로서 향후에도 지속적 성장이 전망됨

- 금융 산업의 AI 이용률은 쉰 산업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이며 향후에도 상승 전망
 - '21년 글로벌 금융기관의 AI 채택 및 이용률은 78%이며(Nvidia), '22년 영국 금융기관의 72%는 AI 어플리케이션을 사용·개발 중(Bank of England)
 - 반면 '22년 전 세계 기업체의 AI 이용률은 50%로 정체(McKinsey)
- 금융사는 고객 서비스, 자산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역량 제고 위해 AI 활용
 - '22년 기준 글로벌 금융기관은 자연어 처리(26%), 추천·포트폴리오 최적화(23%), 자금 세탁/금융사기 탐지(22%) 등의 목적으로 AI 활용(Nvidia)

■ 영 핀테크 스타트업인 Evident가 북미 및 유럽계 대형은행 23곳의 AI 활용 실태를 바탕으로 'AI 성숙도 지수'(AI maturity index) 발표^[1]

- 해당 지수는 ① 임직원 역량(40%), ② 혁신(30%), ③ 리더십(15%), ④ 투명성(15%) 등 부문별 143개 지표로 기업의 AI 역량 평가(괄호 안 가중치)
- 평가 결과 1위는 JP모건(62.6점)으로 리더십 부문에서 가장 높은 점수(70.9점)를 받았으며, 임직원 역량(65.8점) 및 혁신(62.5점) 면에서도 최상위 성과
 -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CEO는 AI와 빅데이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발언을 일관되게 지속하여, 경영진부터 AI를 체계적인 전략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
 - JP모건은 피인용건수 11건 이상인 논문을 발표한 직원 수가 가장 많았으며(60인 이상), 주요 빅테크 기업 및 은행 출신의 전문가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고, 특허건수 또한 타행대비 월등히 많음(1,600~1,800건)
- JP모건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들은 50점 미만의 점수를 받아 AI 성과 개선 필요

[1] "AI INDEX BANKS: The global standard benchmark of AI maturity", Evident, 2023

■ 금융 산업 내 AI 성과를 개선하려면 효율적인 AI 전략 및 지배구조, 주기적 검증을 통한 AI 모형의 라이프 사이클 관리, 임직원 역량 강화 등 필요²⁾

- AI 고성과 기업은 타 기업과 차별화된 AI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는 공통점 보유
 - AI를 활용함으로써 EBITA가 20% 이상 개선되었다고 보고한 기업(‘AI 고성과 기업’)은 전사적으로 비즈니스 관점에서 AI 전략을 우선시하는 로드맵을 보유
- 운영 실무 차원에서 AI 고성과 기업은 신규 데이터를 AI 모형에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는 데이터 관리·전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수학·통계적 근거가 탄탄한 AI 모형을 통해 데이터 규모에 강건한(robust)한 결과를 산출
 - 뿐만 아니라, AI 및 데이터 지배구조, 데이터 품질 관리, 주기적인 모형 평가 등 AI 관련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도 적극적으로 시행
- 한편, 우수한 AI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 임직원의 역량강화도 대안
 - AI 고성과 기업은 기술 관련 우수 대학 제휴(58%), 임직원 교육(47%), 우수 기술 기업 인력 유치(46%) 등을 통해 AI 인재 구인난에 대응

■ 국내 금융사도 AI 성과 및 역량을 개선시키기 위한 성숙도 지수 및 관리체계 개선 필요

- Evident의 은행 AI 성숙도 지수는 향후 국내 금융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 제시
 - 금융사는 경영진의 일관된 AI 경영 방침 하 효과적인 AI 전략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AI 우수 인재를 채용·훈련해 AI 서비스를 고도화해 나갈 필요
 - 고객 대상으로는 윤리적이고 안전한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
- 한편, 규제와 낡은 전산시스템(legacy system)이 국내 금융 산업 내 AI 발전의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
 - 글로벌 AI 지수(英 Tortoise Intelligence) 기준 우리나라의 '22년 종합 순위는 7위지만, 관련 규제의 복잡성·모호성으로 인해 ‘운영 환경’ 부분에서는 32위 기록 

■ 은행별 AI 성숙도 지수 (순위, 괄호 안 점수)

회사명	순위(점수)	역량	혁신	리더십	투명성
JP Morgan	1(62.6)	1	1	1	1
RBC	2(41.4)	7	3	7	3
Citigroup	3(39.0)	6	2	13	9
UBS Group	4(38.6)	4	9	5	15
Wells Fargo	5(38.0)	5	8	14	5
Toronto-Dominion	6(37.9)	10	16	2	2
ING Group	7(37.6)	3	10	8	6
BOA	8(37.4)	2	7	15	16
BNP Paribas	9(34.4)	12	13	3	7
Morgan Stanley	10(33.5)	11	4	11	19

자료 : Evident (2023)

■ AI 성숙도 지수의 주요 평가지표

기준	하위기준	평가기준 (요약)
임직원 역량	임직원 역량	AI 부서 직원의 관련 역량
	역량개발	은행의 인재 채용·보유·훈련 역량
혁신	연구 및 특허	은행 보유 논문·특허·세미나
	벤처 및 파트너십	AI 기업 대상 인수/투자/협업
리더십	생태계	AI 생태계에 대한 기여도
	경영진 인식	경영진의 AI 인식 및 수준
투명성	AI내러티브	AI 대한 은행 방침 및 커뮤니케이션
	책임감 있는 AI	책임감 있는 AI 관련 활동·기여
	AI 통제	AI 리스크 통제 노력

자료 : Evident (2023)

[2] “The state of AI in 2022—and a half decade in review”, McKinsey, 2022

금리: 3월 FOMC에 대한 시장 눈높이 상향

윤 석 진 연구원(sjyun826@hanafn.com)

글로벌 금리는 미국 경제지표 예상치 상회 및 파월 연준 의장의 매파적 발언 등에 따라 상승했다. 국내금리는 2월 소비자물가의 예상치 하회에도 불구하고, 연준 긴축 강화 우려에 연동돼 상승했다. 파월 의장은 통화정책 의회 보고에서 최종 기준금리 상향 가능성 및 3월 FOMC에서의 빅스텝 가능성을 열어두며 매파적 입장을 전달했다. 국내 시장금리는 3월 FOMC를 앞두고 미국 고용 및 물가지표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짐에 따라, 경제 데이터에 의존한 대외금리 변동성에 연동될 전망이다.

■ 글로벌 금리는 파월 의장의 매파적 발언 및 美 경제지표 예상치 상회 등에 따라 상승

- 美 1월 고용, CPI, 제조업 생산 및 소비 관련 지표가 반등하며 인플레이션 우려가 재부각된 가운데, 미국 1월 PCE물가 및 22.4Q 단위노동비용 또한 예상치를 상회
 - 美 PCE/근원PCE(% , YoY) : 22.11월 5.5/4.7 → 12월 5.0/4.6 → 1월 5.3/4.7 (예상 5.0/4.3)
 - 美 단위노동비용(QoQ) : 22.2Q 6.6% → 3Q 6.9% → 4Q 3.2% (예상 1.6%)
- 이에 대한 연준 인사들의 매파성 발언이 이어짐에 따라 시장 내 긴축 경계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파월 의장의 통화정책 의회 보고 발언 또한 매파적으로 평가
 - 특히, “최종 금리 수준이 이전 예상보다 높아질 수 있음”, “데이터에 따라 금리인상 속도를 높일 준비가 되어있음” 등의 발언이 주목되며 연준 긴축 경계감이 강화
- 한편, 호주RBA는 기준금리 25bp 인상 결정에도 통방문 및 총재발언을 통해 비둘기 파적 입장을 시사했으며, 캐나다중앙은행은 금번 회의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
- 美 금리는 예상치를 상회한 경제지표와 파월 의장의 매파적 발언 영향 등으로 상승
 - 美 국채 2/10년물 금리(%) : 2.24일 4.80/3.95 → 3.3일 4.87/3.96 → 9일 4.88/3.91

■ 국내금리는 2월 소비자물가 예상치 하회에도 불구하고, 연준 긴축 강화 우려에 연동돼 상승

- 대외發 긴축 부담에 따른 국내 추가 인상 우려 속 2월 소비자물가가 예상치를 하회
 - 한국 소비자물가지수(% , YoY) : 22.12월 5.0 → 1월 5.2 → 2월 4.8 (예상 5.1)
- 한은 총재는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3월 이후 물가가 4.5% 이하로 하락을 기대하며, 연말 3%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을 밝히며 물가 경로에 대해 완화적으로 발언
- 국내금리는 물가지표의 예상치 하회에도 불구하고, 연준 긴축 강화 우려 등에 의해 상승
 - 국고 3/10년 금리(%) : 2.24일 3.56/3.53 → 3.3일 3.79/3.78 → 10일 오전 3.72/3.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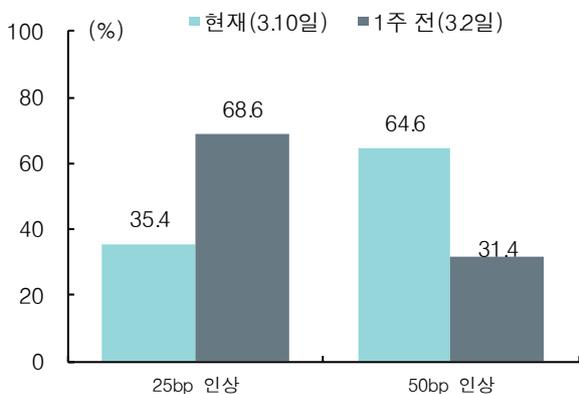
■ 파월 연준 의장, 반기 통화정책 의회 보고를 통해 추가 긴축에 대한 매파적 입장 전달

- 최근 美 경제지표의 반등세로 인해 미국 경기 ‘노 랜딩’ 시나리오가 부각되며 긴축 강화 우려가 확산된 가운데, 파월 의장의 의회 발언에 대한 시장참가자들의 이목이 집중
- 파월 의장은 최종 기준금리에 대한 질문에 대해, 현재까지 발표된 데이터를 볼 때 3월 FOMC의 최종금리 수준은 12월 회의 당시의 예상치보다 높아질 가능성을 언급
 - 해당 발언을 통해 3월 FOMC에서의 점도표 상향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평가
- 이와 더불어 FOMC 전까지 공개되는 데이터들을 전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보다 신속한 긴축이 요구되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금리 인상 속도를 가속화할 준비가 되었다고 발언
 - 시장에서 우려하던 3월 50bp 인상 재가속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두는 모습
- 또한 주택을 제외한 근원서비스 부분에서는 디스인플레이션 징후가 거의 없다고 평가하며, 노동시장과 임금 상승세에 대해서도 여전히 목표치를 크게 벗어나 있음을 경계
- 파월 의장의 의회 발언은 향후 연준의 정책 결정에 있어 데이터에 기반한 입장을 지속 강조하면서도, 최근 시장에 반영된 정책금리 경로의 급격한 상승 및 3월 빅스텝 가능성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매파적이었던 것으로 평가

■ 국내금리는 美 FOMC를 앞두고 대외 경제 데이터에 의존해 높은 변동성을 보일 전망

- 파월을 비롯한 주요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이 이어지고 있으나, 최근 발표된 1월 지표의 강세가 일시적일 가능성 또한 제기되고 있어 2월 고용보고서(10일), 2월 CPI(14일) 데이터가 3월 FOMC의 정책 결정을 크게 좌우할 것으로 판단
 - 이에 따라 美 금리는 FOMC 및 2월 경제 지표에 의존해 높은 변동성을 보일 전망
- 국내 금리 또한 美 경제 데이터, FOMC결과 등에 따른 대외금리 변동성에 연동될 전망
 - 국고채 3년, 10년 금리는 각각 3.60%~3.95%, 3.55%~3.90% 범위로 전망 

■ 3월 FOMC 인상 폭에 대한 시장 예상(Fedwatch)



자료 : CME Fedwatch

■ 국내 주요 물가상승률 추이



자료 : 통계청

외환: 美 긴축 우려 vs 中 회복 기대

오 현 희 연구위원(hyunheeoh@hanafn.com)

원/달러 환율은 3월 FOMC에서 25bp 인상을 지지하는 연준 위원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파월의장의 최종 금리 상향 전망 등으로 1,300원을 상회하는 수준을 지속하였다. 中 양회를 앞두고 경기 부양 기대 등으로 위안화가 강세를 나타내며 원화 약세가 제한되기도 하였으나, 中 정부의 성장목표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자 위안화가 약세 전환되며 원/달러 상방압력으로 작용하였다. 3월 FOMC를 앞두고 美 물가지표 등이 대기하고 있어 이들 향방에 따른 환율 움직임을 주시할 필요가 있겠다.

■ [원/달러 환율] 연준發 금리인상 불확실성 등으로 1,300원을 중심으로 등락을 거듭

- 원/달러 환율은 연준의 긴축 우려 확대 등으로 1,327원까지 급등하였으나, 일부 연준 위원들의 비둘기적 발언으로 달러화가 약세 전환하면서 1,294원까지 반락
 - 中 전인대를 앞둔 기대감 등으로 위안화가 강세를 보인 점도 환율 하락 요인
- 그러나 의회에 출석한 파월의장의 최종 금리 상향 전망 등으로 고강도 긴축 우려가 높아지자 위험회피 심리 확산으로 원/달러 환율은 1,320원대로 재차 반등
 - 아울러 2월 무역수지 적자 지속(53.1억 달러, 12개월 연속)에 이어 1월 경상수지도 적자 전환(45.2억 달러, 사상최대)하면서 원화에 부정적으로 작용

■ [국제 환율] 연준의 매파적 기조에 따른 긴축 우려로 달러화 강세, 여타 통화 약세

- 달러화는 파월의장이 지표가 뒷받침될 경우 금리인상 속도가 빨라질 수 있음을 재확인한 가운데 고용지표 개선에 따른 긴축 우려로 3개월만에 최고치 경신
 -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시장에서는 3월 FOMC에서의 빅스텝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 (CME fedwatch 3월 FOMC 50bp 인상 가능성: 3.1일 29.9%→3.9일 78.6%)
- 유로화는 유로존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ECB 위원들의 매파적 발언으로 회복세를 보였으나, 연준의 매파 스탠스에 대한 경계감으로 약세 전환
- 위안화는 2월 中 제조업 PMI가 반등(50.1→52.6)한 가운데 양회를 앞두고 강세를 나타냈으나, 정부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성장 목표가 시장 예상을 하회하자 약세
- 엔화는 2월 도쿄 CPI(신선식품 제외)가 예상치를 상회(3.3%)했음에도 불구하고 차기 BOJ 총재 선임 이후에도 통화 완화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 등으로 약세를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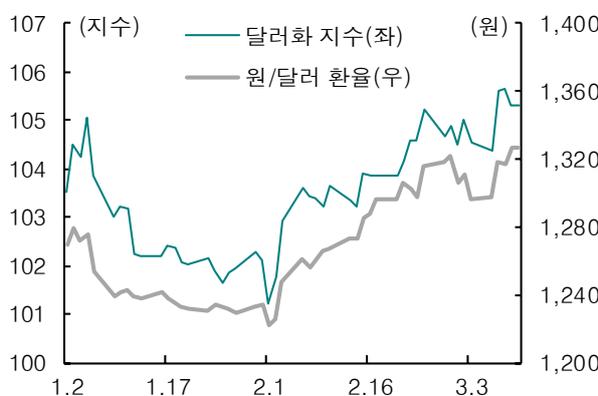
■ 中 정부의 보수적 성장목표에도 불구하고 정책의지 등을 감안할 때 위안화 회복에 무게

- 전인대 업무보고(3.5일)에서 中 정부는 2023년 성장률 목표치를 5%로 제시하여 시장의 예상(5.0~5.5%)을 하회하자 위안화는 약세 전환(3.8일 6.97위안까지 상승)
 - 대내외 불확실성 속 부동산 등 잠재 리스크 등을 감안하고 지난해 제시했던 목표(5.5%)가 실제치(3.0%)에 미달한데 따른 부담이 보수적 목표 설정 요인으로 판단
- 다만, 보수적 성장률 전망치에도 불구하고 재정수지 적자규모 및 지방정부 특수채 발행한도 상향, 지방정부 중심 소비부양조치 강화 등에서 경기부양 의지가 부각
 - 재정적자 목표치(3.0%)를 지난해(2.8%) 보다 높게 제시하고 지방정부 특별채권발행 한도 역시 3.8조위안으로 늘려(지난해 3.65조위안) 정부 지출을 확대
- 中 정부의 정책의지 및 최근 경제지표 반등 흐름 등을 감안할 때 중국 경기회복 가능성은 유효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위안화 가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

■ 연준 긴축 기조에 따른 달러강세 속 주요지표를 대기하며 환율 변동성 지속 가능성

- 美 연준의 최종금리 상향 전망과 50bp 인상 가능성 등 긴축기조 장기화 우려 등이 달러화 강세를 견인하면서 원/달러 환율의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
- 파월 의장이 향후 지표들을 지켜보고 정책을 결정한다고 밝힌 만큼 주요 지표들의 향방과 3월 FOMC 결과(최종 금리 수준, 점도표)에 따른 환율 움직임을 주시
 - 美 2월 CPI(3.14), PPI&소매판매&주택시장지수(3.15), 3월 소비자기대지수(3.17)
- 다만, 당국의 경제심리 지속, 中 실물지표 개선에 따른 위안화 반등 가능성 등이 상단을 제한하며 2주간 원/달러 환율은 1,280~1,350원에서 등락할 전망 

■ 달러화 지수와 원/달러 환율 추이



자료: Bloomberg

■ 중국 전인대 업무보고 주요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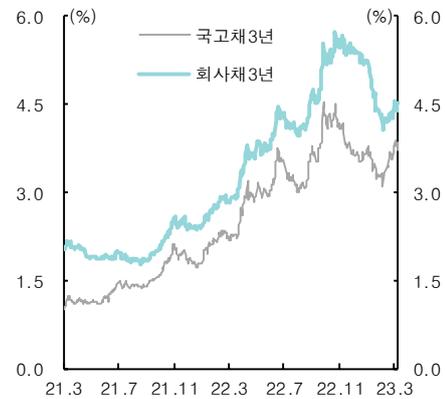
	2021년	2022년	2023년
경제성장률	6% 이상	5.5% 내외	5.0% 내외
소비자물가	3% 내외	3% 내외	3% 내외
재정적자 (GDP대비)	3.2%	2.8%	3.0%
지방특수채 한도	3.65조위안	3.65조위안	3.8조위안
도시 신규고용	1,100만명	1,100만명	1,200만명
도시 실업률	5.5%	5.5%	5.5%

자료: 중국 국무부, Bloomberg

국내 금융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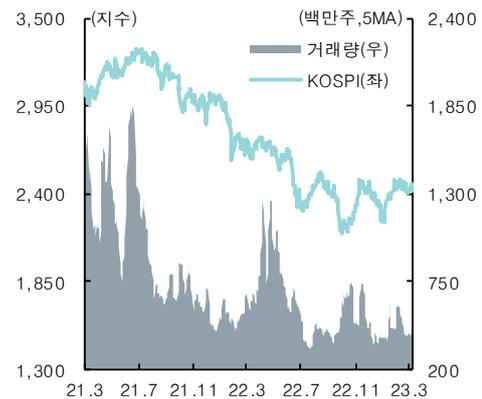
금리

	콜 (1일)	CD (91일)	산금채 (1년)	회사채 (AA-, 3년)	국고채 (3년)	국고채 (5년)
'21년말	1.44	1.29	1.66	2.42	1.80	2.01
'22년말	3.38	3.98	4.17	5.23	3.72	3.74
2월말	3.46	3.59	3.89	4.48	3.80	3.83
3월 3일	3.37	3.61	3.86	4.47	3.79	3.82
3월 6일	3.34	3.61	3.86	4.46	3.77	3.78
3월 7일	3.43	3.61	3.83	4.41	3.73	3.72
3월 8일	3.46	3.61	3.88	4.53	3.86	3.82
3월 9일	3.44	3.61	3.90	4.54	3.86	3.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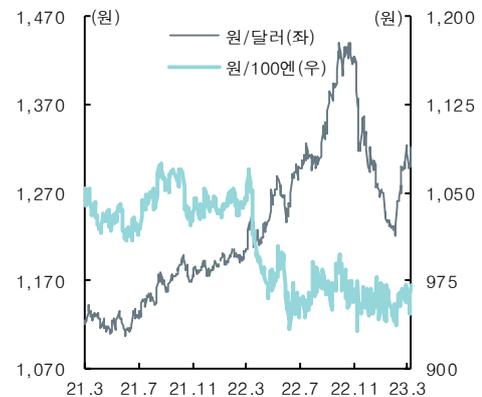
주가

	KOSPI	거래대금 (억원)	거래량 (백만주)	외인순매수 (억원)
'21년말	2,977.7	87,275	461	-2,184
'22년말	2,236.4	60,365	361	-1,437
2월말	2,412.9	92,742	530	-2,868
3월 3일	2,432.1	78,454	372	-909
3월 6일	2,462.6	97,812	419	3,271
3월 7일	2,463.4	107,325	450	3,406
3월 8일	2,431.9	99,671	438	577
3월 9일	2,419.1	103,576	476	-9,732



환율

	원/달러	원/100엔	원/위안	원/유로
'21년말	1,188.8	1,032.8	187.1	1,352.4
'22년말	1,264.5	950.3	181.5	1,349.0
2월말	1,322.6	971.5	190.8	1,398.8
3월 3일	1,301.6	958.2	188.4	1,384.1
3월 6일	1,296.9	953.5	187.1	1,384.4
3월 7일	1,299.4	947.4	186.6	1,370.9
3월 8일	1,321.4	962.7	190.1	1,393.7
3월 9일	1,322.2	971.4	189.8	1,39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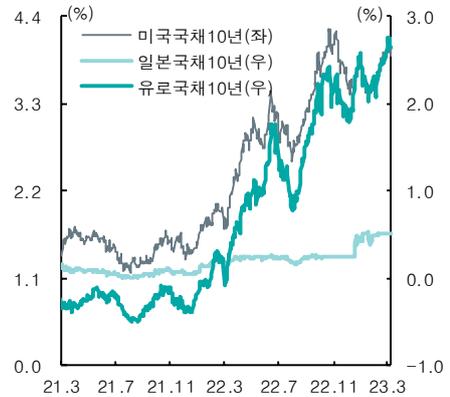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연합뉴스포맥스

해외 금융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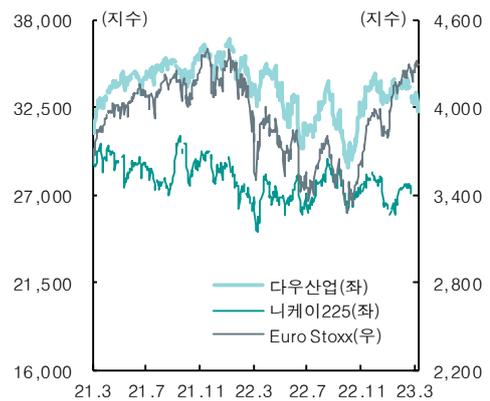
:: 금리

	미국			일본 국채10년	유로 국채10년
	실효FFR	리보(3월)	국채2년		
'21년말	0.07	0.21	0.73	1.51	0.07
'22년말	4.33	4.77	4.43	3.87	0.42
2월말	4.57	4.97	4.82	3.92	0.51
3월 3일	4.57	4.98	4.86	3.95	0.51
3월 6일	4.57	5.01	4.89	3.96	0.51
3월 7일	4.57	5.03	5.01	3.96	0.50
3월 8일	4.57	5.12	5.07	3.99	0.51
3월 9일	4.57	5.15	4.87	3.90	0.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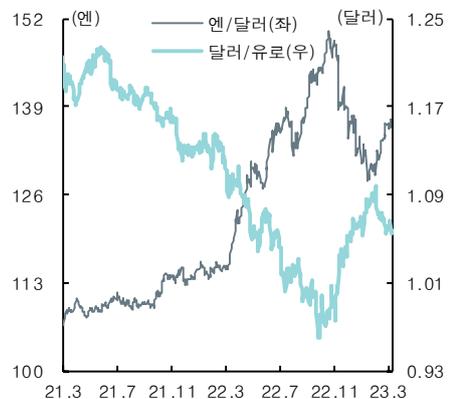
:: 주가

	다우산업	닛케이225	상하이종합	Euro Stoxx
'21년말	36,338.3	28,791.7	3,639.8	4,298.4
'22년말	33,147.3	26,094.5	3,089.3	3,793.6
2월말	32,656.7	27,445.6	3,279.6	4,238.4
3월 3일	33,391.0	27,927.5	3,328.4	4,294.8
3월 6일	33,431.4	28,237.8	3,322.0	4,313.8
3월 7일	32,856.5	28,309.2	3,285.1	4,279.0
3월 8일	32,798.4	28,444.2	3,283.2	4,288.5
3월 9일	32,254.9	28,623.2	3,276.1	4,286.1



:: 환율/상품

	환율		상품(유가 현물, 금 선물)	
	엔/달러	달러/유로	Dubai(\$/배럴)	Gold(\$/온스)
'21년말	115.09	1.138	77.2	1,814.1
'22년말	131.27	1.071	78.8	1,826.2
2월말	136.13	1.058	81.9	1,836.7
3월 3일	135.83	1.063	83.2	1,854.6
3월 6일	135.96	1.067	84.1	1,854.6
3월 7일	137.14	1.055	84.6	1,820.0
3월 8일	137.23	1.055	82.0	1,818.6
3월 9일	136.11	1.058	81.8	1,834.6



자료 : Bloomberg, 연합뉴스포맥스



하나금융포커스

제13권 6호

등록번호 서울중, 다00037

등록일자 2011년 3월 21일

2023년 3월 10일 인쇄

2023년 3월 13일 발행

발행인 이승열

편집인 장보형

발행처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대표전화 2002-2200

홈페이지 www.hanaif.re.kr

인쇄 (주)광문당

본 지에 게재된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으로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홈페이지



카카오톡 채널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하나금융포커스 제13권 6호

0453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Tel 2002-2200 Fax 2002-2610